2026.9.13	연중 제 24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42번>	<폴더 44번>	<폴더 14번>	<폴더 28번>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임마누엘	주는 우리의 기쁨

제 1독서 | 집회서 27,30-28.7

화답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제 2독서 | 로마서 14,7-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8,21-35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30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28,1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2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3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4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5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6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7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제 2독서>

형제 여러분,
7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9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24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관계 안에 용서의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정의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악을 막아야 하는 곳에서, 은총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책임이나 해야 할 바를 넘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악은 복수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복수는 세상을 질식시키며 퍼져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오늘의 시

용서의 꽃
-이해인 수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어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궁극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신비와 그 사랑의 신비를 알려 주는 바로 그 계시 안에서
인간을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고
인간에게 그 지고의 소명을 밝혀 주시기" 때문입니다(사목헌장, 22항).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관계와 친교와 참여를 말합니다.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합니다.
곧 하느님 아버지와 이루는 자녀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모든 이와 이루는 형제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만을 중심으로 삼는 폐쇄적인 태도를 배제합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나누어야 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환대와 상호성, 봉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황 레오 14세, “인간의 존엄: 선물이자 책임”에 관한 교리교육 중

공지 사항

1. 주일미사 손님신부님 방문 및 미사 공동집전

다음주 주일미사(9월 20일)에 '최동민 파스칼 (칠레 선교)' 신부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2. 추석 명절 주일미사 - '위령들을 위한 지향'

9월 27일 주일미사는 '조상님,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이웃 등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지향을 두고 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 30분 전부터 연도와 제대 앞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 지향 신청 안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미사 지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 입구에 놓여진 '미사 지향 신청서'에 지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추석 명절 - 식사 나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7일 주일 미사 후에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기본적인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누고 싶으신 '음식 혹은 디저트' 등을 한 접시씩 준비해오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9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고다인 라파엘라 (9.29)**
* **김우경 가브리엘라 (9.29)**
* **박정연 미카엘 (9.29)**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수자원 보호>

필수 자원인 물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봉헌금 & 교무금 | (9월 5일 ~ 9월 11일)

봉헌금	$ 192.15	
교무금	$ 410	

구민식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전인철	정수민	정은영	주정자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퀸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9월 공동체 실천 |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